



連載 [12]

잃어버린 古代都市

XII 돔(Dome) 건축은 왜 만들어 졌을까?

수많은 美術館이나 건축 서적에 있는 구테시폰의 圖版에는 가끔 「1888년 이전의 상태」라는 주석을 볼 수 있다.

오늘날 볼 수 있는 구테시폰궁전은 그 궁전을 향하여 右側의 벽이 폭풍우로 붕괴되고 아치만이 우주 공간에 걸린 무지개와 같이 보인다. 현재 남아 있는 左側의 벽이 새로 축조된 것이며 이것이 붕괴되면 사산朝의 건축을 다시금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오늘날 불완전하면서 그래도 잔존해 있는 것을 열거하면 페리세포르스 근처의 사루뷔스탄 궁전, 휘루사파드 궁전, 스사교외의 카춘강의 堰堤와 교각, 게루가河畔의 다크·이·이반의 궁전, 그 북방의 게르만샤부근에 있는 카스루·이·시린의 城과 궁전 정도라고 말할 수 있다.

아케메네스朝時代의 건축이 세련된

切石積과 石柱, 木材의 보(梁)에 의한 구조였는데 반해서 이해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후에 개화된 사산朝時代의 건축은 벽돌쌓기를 주로하는 아치와 볼트와 돔에 의한 構造로서 오백년이라는 시간의 거리는 구조 기술적으로 보다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구조 기술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巨大한 王宮廣場은 아케메네스朝 이래의 전통을 이어 받아오고 있다.

사산朝에 융성한 화루스地方에서는 산악지대를 제외하면 粘土에 풀잎을 섞어서 햇빛에 건조시킨 생벽돌이나 구운 벽돌이 중요한 건축재료로서 그 벽돌을 스타코라고 불리는 회반죽으로 쌓아 올렸다.

타코·이·키스다의 볼트를 支持하고 있는 양쪽의 커다란 벽체는 内部의 건물로부터 獨立되고 더욱 큰 돔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방형의 平面에 돔을 가설하는 경우 네 모서리의 처리방법으로서 「스킨치·아치」라고 불리는 새로운 방법이 채택되고 있으나 이것은 벽체의 네 모서리에 部材를 가설해서 사각형을 팔각형으로 바꾸어 돔의 圓型에 근사하게 하여 이것을 돔에 접속시킨다는 수법으로서 후에 이슬람건축이나 유럽의 로마네스크 건축에도 채택된 것이다.

기둥과 보의 건축은 말하자면 단순한 空間의 확보에 지나지 않으나 돔에 의한 건축은 공간에 하나의 中心을 부여하고 우리들의 視點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차츰 돔의 頂點을 向하여 빨리 올라가는 감을 느낀다.

사람은 돔의 空間에 의해서 단순한 空間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속의 관계에 몸을 맡기는 것이 되는 것이다. (心象)